

#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첫 오차범위 밖 선두

### 尹 최고치 또 경신... 전월보다 4.1%p 상승

### 이낙연·이재명 18.2%... 각각 2.4%p·1.2%p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24인을 대상으로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총장은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23.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위와 지지도 격차는 5.7%로 차이로 오차범위(+2.2%포인트) 밖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도는 18.2%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각각 2.4%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 추미애

법무부 장관 3.1%, 오세훈 전 서울시장 2.9%, 유승민 전 의원 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6%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조사에 포함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9%, 원희룡 제주지사 1.5%, 김부겸 전 의원 0.8%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1.5%, '없음' 5.7%, '모름·무응답' 2.2%로 집계됐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서울, 인천·경기, 30·40·60대에서 주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수층, 자영업, 노동직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표 지지도는 8개월 연속 하락

세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왔다.

호남과 인천·경기, 20·40·50대, 진보층과 자영업·노동직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23.3%) 정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월 이후 10%대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과 부산·경남(PK), 20·70대 이상,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충청권, TK, 40대에서 상승했다.

법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오세훈·유승민·황교안·주호영·원희룡)은 3.9%포인트 오른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3.1%포인트 내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6.4%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좁혀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직무배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서 윤 총장 판정이 나오면서 업무 정당성은 강화됐고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끌고 간다는 점이 부각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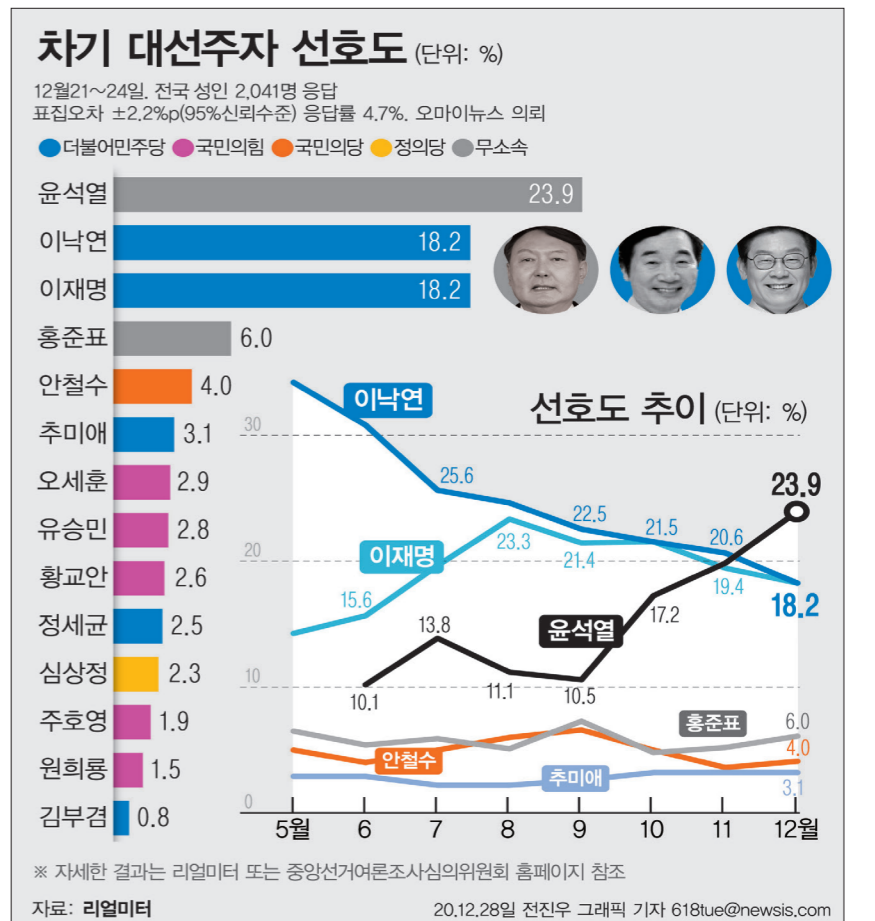
또한 "지난번 지지율 15%를 넘으면 서 문지방 효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확실한 상승로 자리 잡아 대선 출마 여부를 떠나 향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독립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4일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4만3325명에게 접촉해 최종 2041명이 응답(응답률 4.7%)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輿, 변창흠 청문보고서 표결로 채택 강행...野 반발 시위

### 輿 "막말 깊이 뉘우쳐... 책임 있게 장관직 수행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28일 야당의 반발 속에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6인,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변 후보자의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직후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보고서 채택 직전에는 '구의역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사가 재앙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지명철회, 원천무효"를 외치며 위원장석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현승 의원은 "지명 철회를 통해서 이번 인사 참사

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과자만 먹고 메이커 커피만 먹는다. 그건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먹어야 한다. 그걸 왜 국민 혈세를 먹냐"며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분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 자진사퇴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법원 판결로 나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있다"며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강행되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영천 의원은 "그동안 후보자를 혐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대서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변 후보자를 두둔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깊은 반성 중에 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이 안 됐음에도 의혹만으로 통과를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 인사가 청문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재 의원은 "여야 막론하고 혹독한 질책을 했고 후보자도 막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0년이 넘는 사과를 통해서 노동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뼈에 새겼을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도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정서와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며 "특히 재난시기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부적격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임식 때문에 여당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인해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소병철 의원 "순천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환영"

### "역사문화도시 순천의 자랑 될 것"



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호남 유교건축의 맥을 잇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8일 순천향교 대성전을 비롯해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강릉향교 명륜당 등 총 20건의 서원·향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제2101호 순천향교 대성전은 건축연혁이 분명한 17세기 중엽의 유교건축으로, 나주향교 대성전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외2출목·3익공의 특징적인 공포형식, 간결하고 소박한 가구 수법 등에서 시대성 및 조선후기 유교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순천향교 대성전은 개방된 전면을 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다른 향교의 대성전 건물과 비교할 때, 규모·구조·양식 및 의장적인 측면에서 웅장하고 우수하다는 것.

소병철 의원은 "호남지방 향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순천향교 대성전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역사문화도시 순천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천향교 대성전의 보물 지정으로 순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 72점과 전남 지정문화재 60점 등 총 13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